

■ ‘아프간 인질 사태’ 속 광주의 무슬림들

불편한 시선 곤혹... “인질 석방 날마다기도”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이 한국인 봉사단 23명을 피랍하고, 이 중 배현규 목사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권 외국 유학생들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린 평화 사랑... 테러와 연관 안했으면” 파키스탄 유학생 자이드(28·가명·광주과학기술원 컴퓨터 석사과정)씨는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면서 “봉사활동을 간 사람들까지 억류하고 살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침뚫은 표정을 지었다. 광주과거회 유학 온 이슬람권 학생은 20명. 이들은 납치사건 후 함께 모여 인질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다.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도 매주 금요일 10여 명이 모여 사태 추이를 걱정스러운듯 지켜보고 있다. 하남공단의 S급형공장에서 일하는 들라 아흐마드(27·방글라데시)씨는 “매일 아침 기도와 낮 기도 때 한국인

인질들이 풀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몇분씩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시 전체 인구의 0.62%인 8천828명에 달하며,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 아랍권 국가 출신의 이슬람 교도 126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로는 파키스탄 62명, 방글라데시 50명, 이란 3명 기타 11명 등이다. 이중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가 출신 6명도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목포~홍도 항로에 새로 투입될 초쾌속선 ‘하이제트훼리’호. 시속 83km로 종전보다 50분 빠른 1시간 40분만에 주파한다. (하이제트훼리측 제공)

목포~홍도 1시간40분 ‘초쾌속선 시대’ 열린다

남문바위·시루떡바위·물개굴·석화굴·기동바위·탑바위... 뱃길로 1시간40분만 달리면 홍도의 빼어난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목포에서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오가는 초쾌속선 취항이 가시화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홍도 간 초 쾌속선 취항 면허 불허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초쾌속선이 운항하면 ▲목포~홍도 1시간40분 ▲목포~도초·비금은 40분 ▲목포~흑산 1시간20분으로 운항시간이 단축된다. 종전의 경우 목포~홍도간은 2시간30분 걸렸다. 한 번에 240명이 탈 수 있는 초쾌속선 ‘하이제트호’는 161t이며, 시속 45노트(시속 83km, 1 knot=1.852km/h). 선사 측은 빠른편 운 연달안으로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편도 3만2천~3만5천원 선. 신안군과 “전철후 해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하이제트훼리’ 측은 지난해 2월 목포~홍도 항로에 초쾌속선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수청은 당시 수송 수요기준 미달(평균 탑재 승객 35% 이하)과 과다 경쟁 유발로 인한 적자누적 등의 이유로 불허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하이제트훼리’측이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하자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 사이버 가정학습 ‘인기’

이수 학생 지난해보다 5.7배 늘어

사이버 가정학습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끝난 ‘광주 사이버 가정학습’(http://cyber.gedu.net) 이수자는 초·중·고생 5천937명. 이는 지난해 1학기 1천37명에 비해 5.7배 늘어났다. 사이버 가정학습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현직 교사의 실시간 지도 및 토론과 학습상담 ▲수업생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방송국(GEB) 때문이다. 특히 올



장마 뒤늘, 곡성군 죽곡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곡성=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장마 이후 농작물 병해충 ‘비상’

영산강·성진강 물 이용부담금 인상 내년 t당 170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7일 영산강·성진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을 t당 내년 170원, 2009년 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 현재 부담금은 t당 160원이다. 이번 인상은 수변 생태계 복원과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 물관리정책 추진사업 및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사업비용에 따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영산강·성진강수계 관리 기금으로 2008년 609억원, 2009년도에 658억원이 조성되면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활성화와 상수원 상류지

전남 이삭도열병 등 방제 작업 본격화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삭도열병·흰등말구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전남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강수량이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벼멸구와 흑명나방 피해가 심했으나, 올해는 마른 장마가 계속되며 비열이 검은 반점이 생기는 이삭도열병을 비롯 문고병·흑명나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병해충 발생은 올 6·7월 날씨가 강수량은 적으나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적고 기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 6·7월 광주지역 일조시간은 각각 119.1과 68.5시간으로 평년 77.4, 163.1시간에 비해 적었으나, 6월 평균 기온은 22.9도로 평년 22도에 비해 높았다. 약재 살포 작업을 하던 곡성군 죽곡면 김홍선(75)씨는 “벼열에 반점이 생기는 이삭도열병이 번지고 있어 서둘러 방제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8월 말 출수시기 때의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은 수확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이삭거름 주기와 적기 방제가 적극 내사될 것”을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생분관 지하 1층 예식소. 부음 ▲송석근씨 26일 별세 축하·옥환(건설업)·회화(전남대 국문과 교수)·동하(군부인)·정하(바다유통)부친상 정민철·여운성(수원지법) 빙부상=발인 28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 영주동 성당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0-0524. 062)227-9600. FAX:227-9500. 광주광역시교육국 '수원중의 3교 신축 및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편제 기본계획 고시.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중현(361103-16414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삼원크리토프공업 주식회사 파산종결 공고. 사 건 2003하합39 파산선고 채 무 자 삼원크리토프공업 주식회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 파산관재인 양동환

산행안내. 7월 29일(일) ▲부동산학회 1차 연구자 7월 29일(일) 07시30분 롯데백화점 정릉점(유동농생물원경유)출발 T.011-682-6278

8월 3일(금) ▲광주도요신익회 총회 연구자(일) 07시30분 광주역출발 T.011-645-7796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빌딩 임영명대표). 토지 매도: 광주 동명동(하남 입목도로교점 주거지역 대, 227㎡(주말있음/매각전환전원주택)